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자”

제22회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가족단합 체육대회 ... 대진 김일섭씨 군수 표창

(사)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는 지난 22일 고성군종합운동장 옆 보조경기장에서 농업경영인 및 회원 가족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2회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가족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경영인 가족의 친선과 화합을 이루고 농업정보를 교류하며, 고성군연합회의 긍지와 자신감을 고취해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시상, 대화사, 격려사 등 기념식에 이어 축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등 체육행사와 경품추첨,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에서는 우수회원에게

포상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 농업경영인 자녀 10명에게 총 2천100만원의 장학금도 수여했다.

안한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쌀값 하락과 구제역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연합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연합회 가족들과 임원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지난 22일 고성군종합운동장 옆 보조경기장에서 제22회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가족단합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표창 및 감사장(패)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군수표창 김일섭(대진) ▲국회의원표창 어승길(봉호) ▲전태운(산북) ▲함옥환(대진) ▲김윤경

(야촌) ▲박상준(용촌) ▲군의장표창 ▲송종남(삼포) ▲경찰서장감사장 ▲권혁수(광산) ▲임종혁(봉평) ▲송규화(원암) ▲중앙회장공로패 ▲오종현(광산) ▲도회장공로패

윤기준(원당) ▲농업인신문사공로패 ▲윤종덕(오봉) 이밖에 농협군지부장, 진성식품, 미래농자재, 읍·면직원 등 8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원광연 기자

취약계층 안정된 일자리 창출 노력

올 상반기 고성군 최초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직원 20명, 연매출 2억5천만원

업체탐방

늘푸른환경

간성을 상리 동해아파트 앞에 위치한 '늘푸른환경'은 조합원(사원)지주회사다. 공동소유, 공동경영, 공동노동과 분배를 원칙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설립된 기업이다.

고성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

출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늘푸른환경은 2008년 4명의 청소공동체로 창업해 청소관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4년여 동안 직원 20여명, 연매출 2억5천만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원도는 이러한 사업적 성과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인정해 올

해 상반기 고성군에서 최초로 강원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부여했다.

이 업체의 주된 사업은 건물위생 관리 용역업, 대행청소업, 훌라후프업, 소독, 방역, 물탱크 청소업, 청소용품 판매업 등이다.

현재 13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존의 사업아이템과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나

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청소 관련업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직원의 자격증 습득을 통한 도장사업, 인테리어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찬 대표는 (50세) “공공기관들이 우리업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타지역 업체에 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업체의 성장에 관



늘푸른환경 권찬 대표

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100% 유지할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강원랜드(035250)

지난 한 달 반 동안 시장은 긴 조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반등도 있었지만, 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반등은 크지 않았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반등을 이용하여 개인들에게 물량을 남기고 제한적인 자금으로만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다행히 국외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고, 그리스 관련 악재를 비롯한 조정 과정에서 나온 악재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긍정적인 이슈에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증시 역시 2,000p 전후에 심리적인 지지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위치하면서 단기 반등은 분명히 있을 자리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말 그대로 단기 반등일 뿐, 반전을 위한 신호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술적인 흐름이 반등 자리일지라도 수급에서 강한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등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은 짧고 작게, 조정은 길고 깊게 나오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체력은 상당히 약해져 있고, 반전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여전히 추세가 양호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단기 대응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조정이 끝나면 다시 대형 우량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오겠지만, 그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035250)를 보고자 한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호텔 및 레저산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정부의 매출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과 같은 조정기에 경제 이슈에도 특별히 영향을 받을 일이 없는 기업이다. 게다가, 꾸준히 사업 효율을 높이고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등 기업으로서 꾸준히 경쟁력을 재고

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국내 카지노 시장에서 꾸준한 비용절감 추진 외에 비카지노 사업도 진행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11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관의 수급이 살아 있으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강원랜드를 관심에 두도록 하자.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